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10월 미 소비자 심리 지수 예상외로 낮아... 생활 비용 부담 느낀다
- Bloomberg: 9월 미 생산자 물가 변동 없어... 인플레이 둔화 시사
- CNNBusiness: JP 모건 CEO, '악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 위험성' 경고

[미국 금융]

- WSJ: 연준 금리 인하, 은행에 엇갈린 결과 가져온다
- Bloomberg: JP 모건, 3분기 순이자수입 크게 상회
- Reuter: 웰스파고 예상외 수익 창출... 총당금 비용도 예상보다 줄어

[미국 대선]

- WSJ: 경합주 경쟁 속 주요 이슈에서 트럼프 우위

[에너지]

- WSJ: 난방 수요 기대에 따른 미국 천연가스 가격 상승
- Bloomberg: 유가 하락세... 트레이더들은 이스라엘의 공격과 중국 부양책 기다린다

[글로벌 경제]

- WSJ: WTO, 금리 하락에 무역 전망 상향 조정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 기업들 마침내 가격 내린다
- Bloomberg: 아마존, 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선호
- WSJ: 테슬라 로봇택시, 투자자들 실망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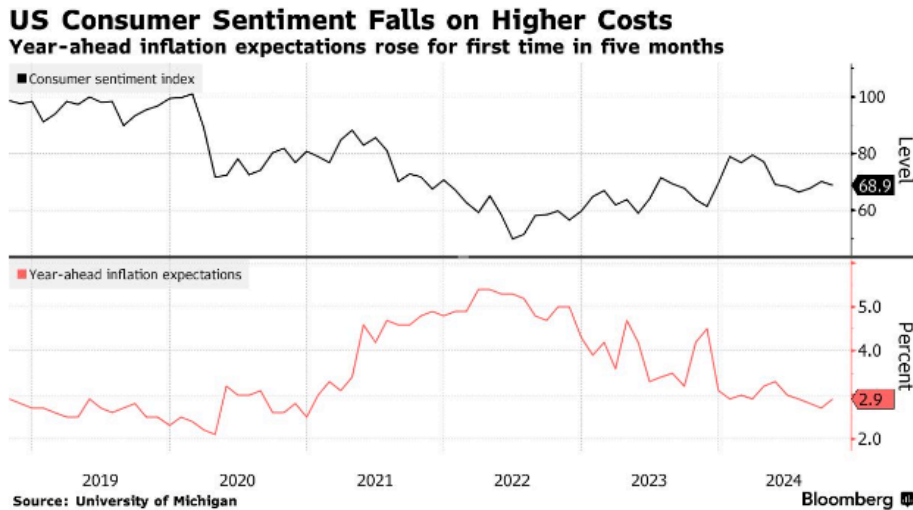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Unexpectedly Falls on High Cost of Living

10월 미 소비자 심리 지수 예상외로 낮아... 생활 비용 부담 느낀다

-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10월 심리지수 예비치가 9월의 70.1에서 10월에 68.9로 떨어졌다. 블룸버그의 전문가 예상 평균치는 71이었다.
- 소비자들은 내년 물가가 2.9%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9월에는 2.7% 상승을 예상했었다.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 반면,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의 물가는 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봐 지난달의 3.1%보다는 낮은 전망치를 예상했다.
- 특히 작년 인플레이 둔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물가가 소득 증가를 앞지른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2022년 말 이래로 현재의 가구 재정 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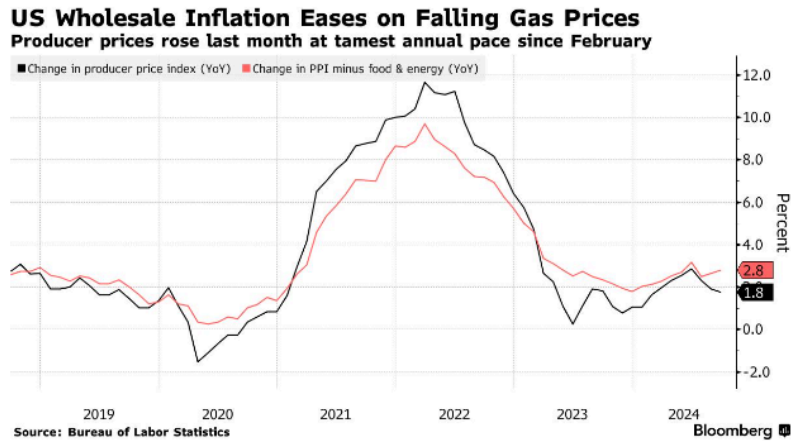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Producer Price Index Unchanged on Decline in Gasoline Costs

9월 미 생산자 물가 변동 없어... 인플레이 둔화 시사

- 9월, 미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물가 지수에 변동이 없었다. 휘발유 가격도 인하되는 상황에서 향후 인플레이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 오늘 금요일 미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에 0.2% 상승한 후 9월에 변동이 있었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8% 상승해 상승 폭이 올해 2월 이후 가장 낮았다.
-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생산자 물가지수를 제외하면 0.1% 상승했다. 작년 5월 변동이 없었던 이후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Jamie Dimon warns of 'treacherous' geopolitical conditions that are 'getting worse'

JP 모건 CEO, '악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 위험성' 경고

-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맞이한 JP 모건의 Jamie Dimon은 글로벌 경제를 해칠 수 있는 지정학적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최근 사건은 상황이 위험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예로 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으로 인해 단기적인 경제 영향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역사의 경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가 둔화되고 있으며 침체를 피하고 있지만, 대규모 연방 적자와 인플레이의 필요성, 무역 재개편, 세계의 비군사화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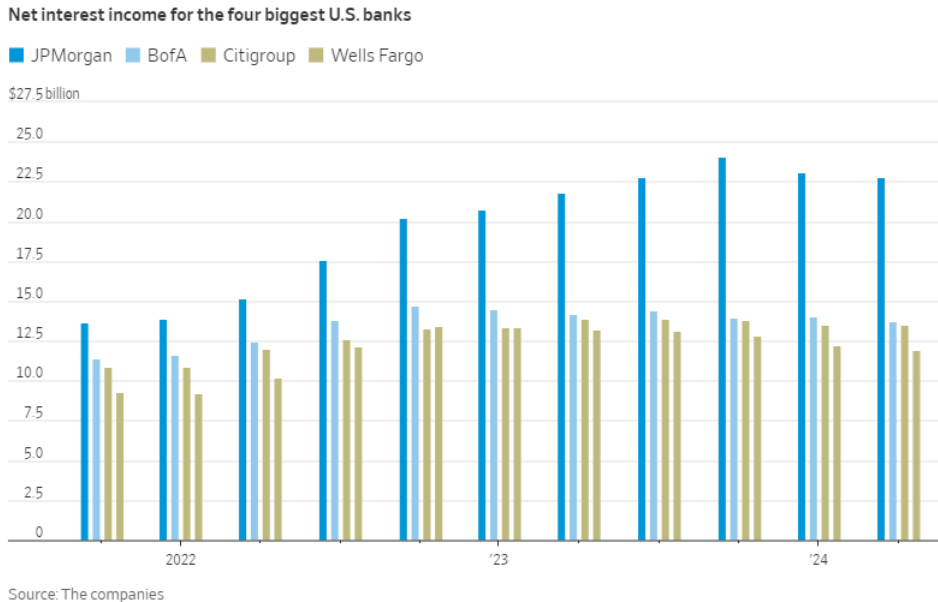
[미국 금융]

WSJ: The Fed's Rate Cuts Should Have Mixed Results for Banks

연준 금리 인하, 은행에 엇갈린 결과 가져온다

- 연준의 9월 빅컷 금리 인하는 연준의 3분기 실적에 많은 영향을 주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던 일정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금리 인하가 용자로부터 수익을 얻은 은행들에게 상반된 결과를 주었다는 것이다.
- 우선 은행들은 저축 계좌나 CD와 다른 디파짓(deposit)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에 이들은 신용카드와 서로 다른 이자율의 각종 용자에 대한 이자율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 최근 여러 분기에 걸쳐 은행들은 연준의 고금리 정책의 여파에 대응해 오고 있었다. 많은 은행들의 경우 저축에 대한 지불 금액의 상승 폭이 용자와 증권을 통해 가져온 수익보다 컸다.



WSJ 기사

Bloomberg: JPMorgan Posts Surprise NII Gain, Raises Key Revenue View
JP 모건, 3분기 순이자수입 크게 상회

- JP Morgan Chase는 3분기 순이자수입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금리가 계속 인하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주요 수익 재원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 이 은행의 월스트리트 영업 수익도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투자 은행 수수료는 예상치 16%를 뛰어넘은 31% 상승했다. 주식 트레이더의 수익도 27%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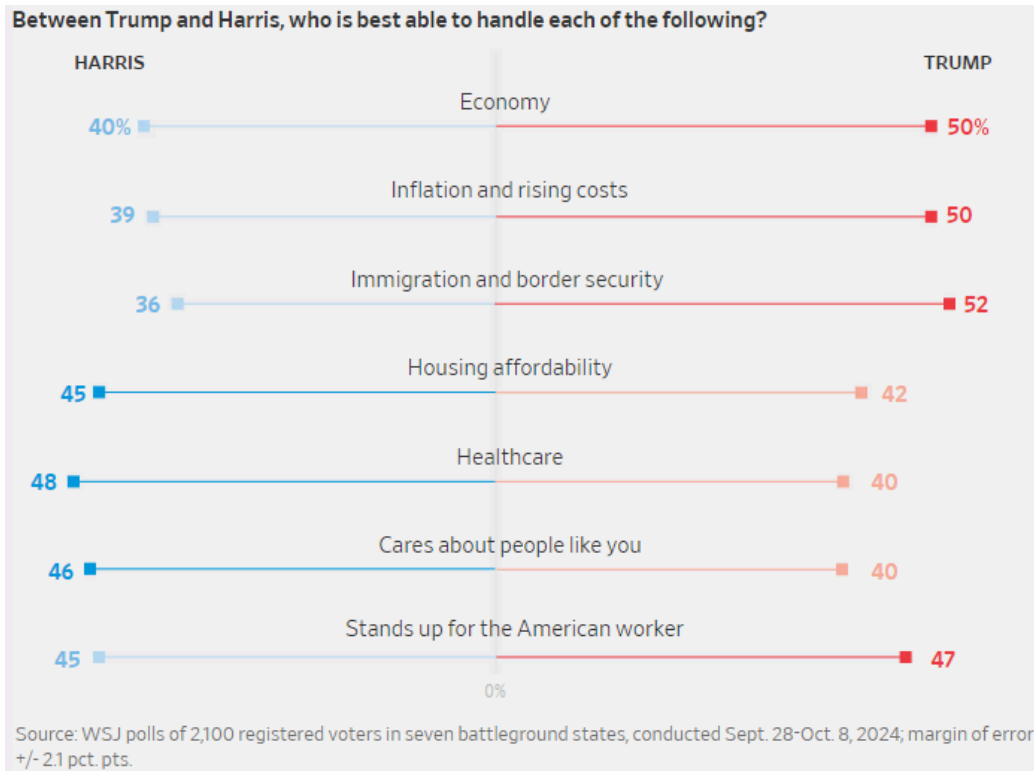
Reuter: Wells Fargo profit beats forecasts as provisions shrink; shares rise
웰스파고 예상외 수익 창출... 총당금 비용도 예상보다 줄어

- 3분기 웰스파고의 수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잠재적인 용자 손실에 대비하는 총당금도 줄어든 상태이며, 향후 이자 수익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도 오늘 금요일 6%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올해 이 은행의 순이자수입은 예상 감소치 8.4%보다 더 낮은 9%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편 웰스파고 CFO는 순이자수입은 실제로는 금리 인하 정책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저축 고객들에 대한 지불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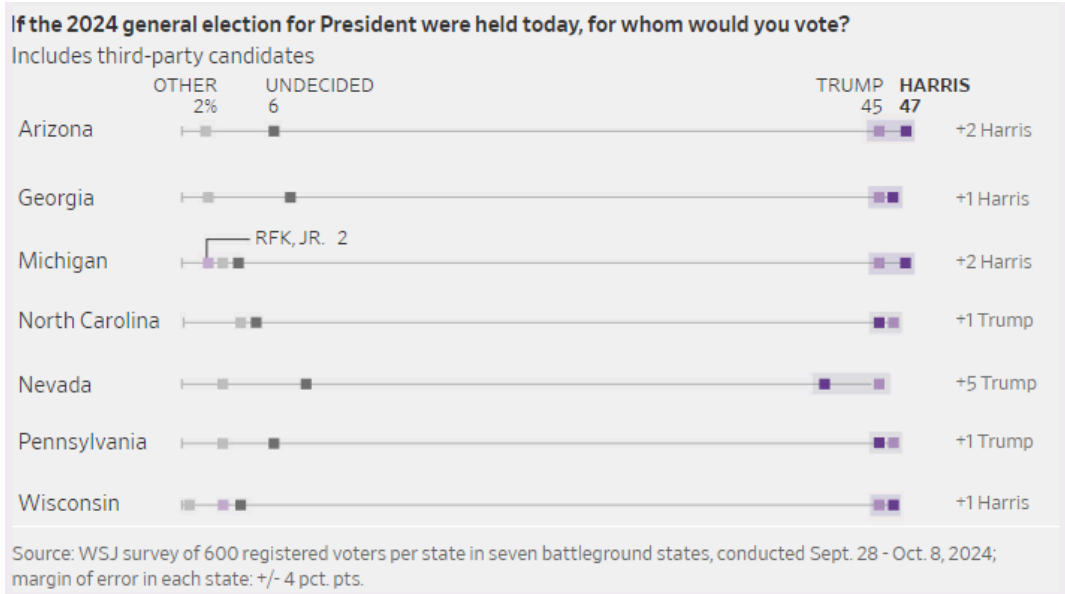
Reuter 기사

[미국 대선]



WSJ: Battle for Swing States Is Tied, Trump Has Edge on Top Issues, WSJ Poll Shows
WSJ "경합주 경쟁 속 주요 이슈에서 트럼프 우위"

-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경제 외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해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누가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양분된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
-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는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에서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네바다에서 트럼프가 5% 앞서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우위가 2%포인트보다 크지 않다.
- 경합주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만약 해리스가 우세한 경합주에서 승리할 경우 전체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수에서 약간의 과반수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에너지]

WSJ: U.S. Natural Gas Gains on Heating Demand Expectations
난방 수요 기대에 따른 미국 천연가스 가격 상승

- 미국 천연가스 선물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기 예보에 따라 다음 주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 다음 주에는 기온이 낮아지며, 초기 한파가 중서부와 미 동북부에 위치한 미시간 호를 비롯한 대호수(Great Lake) 지역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 Nymex의 다음 달 계약 가격은 \$2.718/mmBtu로 1.6% 상승했다.

WSJ 기사

Bloomberg: Oil Falls While Traders Await Israeli Strike and China Stimulus
유가 하락세... 트레이더들은 이스라엘의 공격과 중국 부양책 기다린다

- 트레이더들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과 중국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유가는 하락했다. 런던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79달러 이하로 하락하며, 이번 주 상승 폭은 1% 미만을 기록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석유 인프라 공격을 경고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 헤지펀드는 순매수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다.

- 이번 주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브리핑이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다. 올해 중국의 석유 소비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는 시장을 크게 압박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WTO Raises Forecast for Trade Rebound as Interest Rates Fall
WTO, 금리 하락에 무역 전망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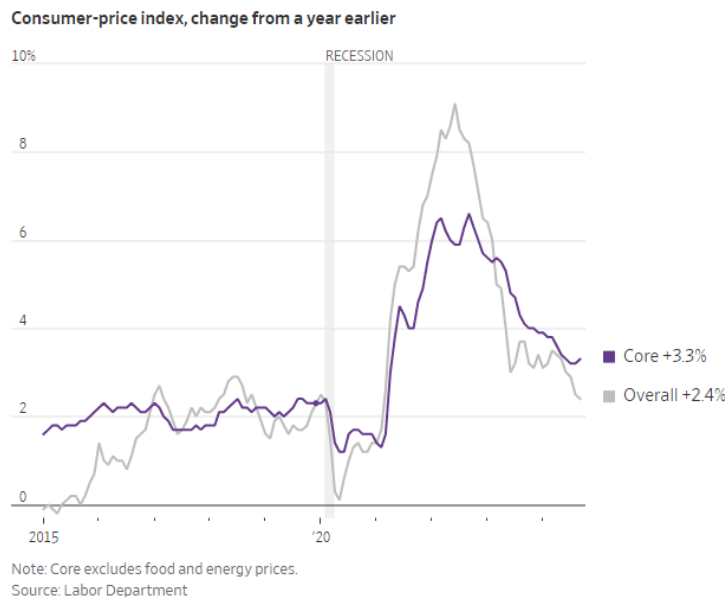
- WTO는 어제 목요일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올해 세계 무역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WTO 사무총장 Okonjo-Iweala는 “2024년 세계 무역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중동의 지역 분쟁 같은 잠재적 방해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 WTO는 올해 상품 무역이 금액 기준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엔 2.6% 증가를 예상했었다. 세계 경제는 2024년과 2025년 2.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WTO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 활동 부양이 세계 무역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속도가 서로 다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 Ralph Ossa는 “통화 정책이 일치하지 않으면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국제 무역에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fter Years of Increases, Companies Are Rolling Back Prices
미 기업들 마침내 가격 내린다

- 소매업체, 레스토랑, 기타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가격을 계속 올렸다. 9월 미국 인플레이션은 3년 만에 최저치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에게 식료품, 보험, 주택 같은 필수품 가격이 팬데믹 이전보다 너무 높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지금, 일부 기업들은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 IKEA는 연간 매출이 5.3% 감소했으며, 수요 촉진을 위해 이번 회계 연도 전 세계 제품 가격을 1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Nike는 최근 분기 매출이 10% 감소했으며, 재고 처분을 위해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 레스토랑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장 조사 기관 Black Box Intelligence에 따르면 올해 레스토랑 전반에서 방문이 감소했다. 레스토랑은 고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올해 더 많은 할인과 홍보를 시작했다. 맥도날드는 6월에 도입한 저렴한 5달러 식사 메뉴를 12월에도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Amazon Prefers Solar and Wind Energy to Nuclear Power in Asia

아마존, 아시아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선호

-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모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로 아마존은 아시아 프로젝트에 태양광과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검토하고 있다.
- 아마존 웹 서비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책임자 Ken Haig는 “아시아 지역에 원자력을 조달할 수 없다. 친환경 에너지도 확보하기 어렵긴 하지만 잠재력이 크다.”라고 말했다.

- 아마존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83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총발전량은 2.2기가와트 이상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 더 많은 친환경 에너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Tesla's Robotaxi Event Disappoints Investors 테슬라 로보택시, 투자자들 실망

- 테슬라 주가가 금요일 개장 전 거래에서 약 8%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목요일 저녁 로스엔젤레스에서 핸들과 페달이 없는 2인승 차량을 공개했다.
- 올해 로봇 및 자율주행으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머스크는 로보택시를 2017년 모델3 출시 이후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홍보했다. 테슬라는 2026년 로보택시 Cybercab 생산을 시작해 3만 달러 미만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전기차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규제 당국을 만족시킬 만큼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 하지만 이번 이벤트에선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Royal Bank of Canada의 분석가 Tom Narayan은 "이벤트에서 만난 투자자들은 실제 수치와 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벤트는 테슬라의 비전을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

예상웃돈 CPI에 美금리 불확실성↑..."신경 안써"vs"동결 가능성" "물가상승률 분명히 둔화 추세"... "금리인하 건너뛴수도"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왔지만 물가 관리 책임이 있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들 가운데 3명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1명은 이번 지표 영향으로 다음 연준의 통화 정책 회의 때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 노동부는 10일(현지시간) 9월 C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0.1% 상승보다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2.4% 올라 시장 예상치 2.3%를 상회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